

“상월선원 천막결사, 재가자도 함께 정진합니다”

11월16일, 첫 토요일정진 시작
300여 불자 동참...열기 후끈
선원 울타리에 소원등 매달며
원만한 화향-불교 중흥도 염원

갑작스러운 한파로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르게 서울에 첫눈이 관측된 날, 허허벌판에서 서리와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위례 상월선원 주변이 이날의 한파를 무색하게 하는 온기로 가득 찼다.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동안거 천막결사에 임한 9명 스님들의 의지를 이으려는 재가불자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진 것. 스님들의 외호 대중을 지체한 이들이 함께한 이날 정진은 훗날 이 자리가 ‘수행문화의 혁신’과 ‘도심포교의 모범’을 보여줄 곳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11월16일 상월선원 아래 마련된 임시법당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동안거 천막결사에 임한 9명 스님들의 의지를 이으려는 재가불자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300여명의 동참자들은 힘찬 목소리로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했다.

정진은 오후 2시,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으로 시작됐다.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40여분 동안 진행된 독송이 고요했던 선원 주위에 울려 퍼졌다. 이어진 108배와 참선은 불자들의 정진 열기를 후끈 달아 올리며 임시법당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상월선원 지도법사인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9명의 스님들은 이곳 임시법당이 불자들에게 형식만을 따르는 정진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기도와 수행을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상월선원에서의 기도가 자신을 바로보고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왈지처럼 한 안거 모습에 의아해할 불자들을 위해 세심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안거라고 하면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만을 떠올리겠지만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한복판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정진은 생활 속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아파트 공사판 속에 위치한 상월선원 정진은 불자들이 만들어가는 야



위례 상월선원 아래 마련된 임시법당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동안거 천막결사에 임한 9명 스님들의 의지를 이으려는 재가불자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300여명의 동참자들은 힘찬 목소리로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했다.

단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의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후 동참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동안거의 무탈한 화향과 응원의 바람을 담은 형형색색의 등을 상월선원 울타리에 매달았다. 개인의 소망보다는 이번 결사의 원만한 화향을 염원하는 글귀가 주를 이뤘다.

울타리 안 상월선원을 향해 하염없이 합장배례를 올린 수국사 신도 김용덕 불자는 “스님들 입제와 동시에 부부가 함께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며 “큰 뜻을 품고 정진하고 있는 9명의 스님들이 건 강하게 안거를 나실 수 있도록 자주 찾아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신도 원자심 불자도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천막을 보니 놀라우면서 신심도 생긴다”며 “신도시에 새로운 사찰을 만들려는 취지도 있구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불교 발전을 위해 동참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탑돌이 후에는 동참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임시법당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있는 환풍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스님은 “9명 스님들의 원만한 화향이 불자들의 신앙생활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도 불자들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죄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에 대해 “달지 않는 배터리”라고 표현한 스님은 “인술 스님을 따라 원력을 크게 갖고 임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1986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뵈을 때 느꼈던 형형한 눈빛이 30년이 훌쩍 넘는 지금 이 법당에도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며 이날의 정진 감격을 표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 학장은 “결사를 통해 불교정신을 되살린 역사를 새겨 보면 이는 초발심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원력을 가진 9명 스님들의 정진에 불자들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매주 토요일 정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병인 교수는 “80년대 불교 수련대회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라며 “한국불교가 침체돼 있다는 소식들에 울적했지만 상월선원을 발판으로 뛰어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환 영석교 교장은 “불자학생들과 다시 한 번 동참해 학생들이 스님들의 원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요일정진은 오후 5시 반이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상월선원 측은 매

주 화·토요일에 정기 정진을 진행하고 매월 한차례 철야정진으로 그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90일 용맹정진은 선원 안 뿐 아니라 밖에서도 진행된다. 명선다래원 다도반 회원 6명은 동안거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제공한다.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되며 차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다. 정오 스님을 포함한 유튜브 담당자 4명은 상월선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에게 제공한다. 상월선원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유튜브에서 ‘천막결사상월선원’을 검색하면 만날 수 있다.

위례=임은호 기자 eunhoic@beopbo.com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 일으킬 것”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위례천막결사, 신심·원력상징
제방선원 대중에도 발심계기
선 수행 문화 대중화에 기여



있지만 이렇게 엄격한 정규를 정하고 정진한 대중들이 있느냐 싶을 정도”라면서 “아무런 난

“요즘 한국불교의 위상이 실추돼 국민과 불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자 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명 스님들이 천막법당에서 진행하는 위례천막결사는 침체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자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사진)이 위례신도시 종교융지에서 매서운 한파와 맞서며 목숨 건 천막결사를 진행하고 있는 9명 스님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선원수좌회를 대표하는 스님이 위례천막결사와 관련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 스님은 “과거 선지식들은 불교가 어려울 때마다 결사라는 방식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며 “침체된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위례에서 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반갑고, 큰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동안거를 맞아 전국의 많은 제방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선원대중들에게도 위례천막결사는 더 발심하고 정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동안거 해제 때까지 묵언을 실천하고, 하루 한 끼만을 공양하며 매일 14시간 정진하는 등의 청규를 정한 것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역대로 많은 청규가 있

방 시설이 없는 곳에서 묵언하며 씻지도 않고 하루 한 끼만으로 14시간 정진하는 것은 대단한 원력과 용맹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위례천막결사는 그 자체로 신심과 원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규가 ‘극단을 바라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스님은 “황백 스님은 ‘불시일변한철골쟁득매화박비향(不是一變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땀속 사무지는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 어찌 콧속을 파고드는 매화꽃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이라고 했다”면서 “천길남따러지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도 당당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번뇌망상을 조복 받을 수 있다. 치열함이 없이는 결코 도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위례천막결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상월선원에서 함께 정진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정진 문화가 한국 선수행 전통을 복원하고 대중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위례천막결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수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동국대 이사에 돈관·정문·현문·원명·성월 스님

11월20일, 제324회 이사회서 선임
개방형 이사 정중래·감사 호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은혜사 주지 돈관, 중앙총회의원 정문, 통도사 주지 현문, 봉은사 주지 원명, 신륵사 회주 성월 스님, 정중래 전 영석교 교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 스님)는 11월20일 제324회 이사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 등 새 임원을 선임했다.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기만료를 앞둔 돈관 스님 후임에 돈관·덕조 스님, 성타 스님

후임에 정문·정수 스님, 법산 스님 후임에 원명·자현 스님, 성효 스님 후임에 성월·성효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돈관, 정문, 현문, 원명, 성월 스님을 선임했으며, 개방형 이사인 정중래 이사과 감사 호산 스님의 연임을 결정했다.

반면 12월19일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일관 스님과 지난 9월 감사 임기가 만료된 주경 스님의 후임 선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이 없어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이 합의한 경주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 경주총추위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선출방식 등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총추위는 조계종 대표위원 4인,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 동문 대표위원 1인, 교원 대표위원 8인, 직원 대표위원 3인, 학부학생 대표위원 1인 등 20인으로 구성한다. 경주총추위는 1인 1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출하며, 외부인사 1인을 최종 후보자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동국대 이사 덕문 스님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김현대 기자 meopit@beopbo.com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제5기 발족

포교원, 정현 스님 등 7명 위촉장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전법 활동을 담당할 어린이청소년위원회 5기를 발족하고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포교원은 11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화분과회의실에서 위원장 가섭 스님(포교원 포교부장 당연직)을 비롯해 중앙총회의원 정현, 파라미타 회장 지현,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동련 이사장 신공, 중앙총회의원인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혜장 스님 등 총 8명으로 5기 위원회를 발족하

고 새로 위촉된 위원 스님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사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계층이 어린이와 청소년이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원력을 갖고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위촉식에 이어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2020년 사업 및 예산 보고, 불교 어린이 청소년 지도사 고시, 포교 자격직 연수 시행 보고의 건, 포교법 개정안 보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임은호 기자 eunhoic@beopbo.com

2020년도 상반기 출가안내

출가

자유와 자비의 길

• 등록권장기간 : 2020년 1월 1일(수) ~ 3월 17일(화) (2020년 9월 수계 예정)

※ 등록기간은 출가 후의 수계일정에 따른 권장기간이며, 출가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안내 전화 : 02)2011-1801

개인 출가상담전화 : 1666-7987

• 조계종 출가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